

‘미다스 손’

천금의 골



“앗호~”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8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시티와의 8강 2차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올린 뒤 허공으로 손구치는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UEFA 챔스리그 8강전 멀티골 ... 토트넘, 맨시티 꺾고 첫 4강 UCL 통산 12골 2위 선수 역대 최다 ... 시즌 20골 개인 최다 -1

손흥민(27·토트넘)에게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는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2018-2019 시즌 어느 때보다 많은 국가대표의 무릎 소화한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물론 국제 클럽 대항전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빼어난 기록을 남기면서 세계 정상급 공격수로 인정받고 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원정에서 전반 7분과 전반 10분 잇달아 골맛을 보며 멀티골을 작성했다.

토트넘은 맨시티에 3-4로 패했지만 8강 1차전 1-0 승리(손흥민 결승골)를 앞세워 1, 2차전 합계 4-4를 만든 뒤 원정 다득점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손흥민의 멀티골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의 4강 진출이 물 건너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더불어 토트넘은 UEFA 챔피언스리그의 전신인 1961-1962 시즌 유러피언컵 이후 무려 57년 만에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특히 팀의 핵심 공격자원이던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면서 토트넘의 해결사로 자신의 임무를 100% 수행하며 외신들의 칭찬 세례를 받았다.

◇물 흐르듯 골맛을 가른 ‘원샷 원킬’ 능력 = 손흥민에게는 ‘손흥민 존(zone)’이 있다. 원샷과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좌우 부근에서 감아 차는 능력이 뛰어나다. 패스를 받으면 간결한 볼 터치로 수비와 간격을 만든 뒤 정확한 강렬한 슈트로 득점을 만든다.

이날 맨시티전에서는 손흥민의 장점이 모두 발휘

됐다. 손흥민은 전반 7분 델리 알리가 투입한 불이 상대 수비수 맞고 흐르자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눈 스톱 오른발 슈트로 동점골을 뽑았다. 첫 번째 슈트 기회를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했다.

손흥민은 3분 뒤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한 차례 볼터치 이후 곧바로 오른발 감아차기 슈트로 두 번째 골거리를 흔들었다. 손흥민의 추가골 역시 자신의 두 번째 슈트였다. 손흥민은 이날 3차례 슈트 가운데 2개를 골로 만들면서 ‘원샷 원킬’ 능력을 과시했다.

◇지치지 않는 체력·뛰어난 자기관리 능력 = 손흥민은 이번 시즌 국가대표에 자주 소집돼 ‘혹사 난관’에 휩싸였다. 지난해 6월 2018 러시아 월드컵(3경기)을 시작으로 2018-2019 시즌을 시작한 손흥민은 지난해 8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6경기)을 다녀왔고, 벤투호의 지난해 10월 및 11월 평가전도 빠짐없이 참가했다. 지난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치러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다녀왔고, 지난해에도 대표팀 평가전을 치렀다.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부터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국가대표팀 평가전 등 A매치 12경기와 아시안 게임 6경기를 합쳐 태극마크를 달고 총 18경기를 소화했다.

소속팀에서도 손흥민은 정규리그 26경기, FA컵 1경기, 리그컵 4경기·UEFA 챔피언스리그 10경기를 합쳐 41경기를 뛰었다.

대표팀과 소속팀 경기를 합치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무려 59경기에 출전하는 ‘강철 체력’을 과시했다. 철저한 자기 관리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경기 수다.

대표팀 일정 때문에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험거운 상황에서 손흥민은 정작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는 시즌 초반 좀처럼 터지지 않는 득점 때문에 고생해야만 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대표팀 때문에 혹사를 당한다는 불만까지 내놨다.

손흥민은 마침내 지난해 11월 웨스트햄과 2018-2019 카라바오컵(리그컵) 4라운드(16강)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로 시즌 마수골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슬로스타트’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한번 물꼬를 튼 손흥민의 발끝은 연속골 행진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3경기 연속골과 지난 1-2월 4경기 연속골 등 몰아치기 능력을 펼쳐 보이면서 정규리그 12골, FA컵 1골, 리그컵 3골, UEFA 챔피언스리그 4골을 합쳐 ‘20골 고지’를 밟았다.

특히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개인 통산 12골을 쌓아 막심 샤츠키흐(우즈베키스탄·11골)를 뛰어넘어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 ‘어느 곳에도 손흥민은 빛났다’ = 손흥민의 최대 장점은 최전방은 물론 중원과 좌우 날개까지 구애받지 않고 뛰는 ‘멀티포지션’이다.

맨시티를 상대로 루카스 모라와 함께 투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경기 도중 왼쪽 날개로 이동하더니 후반에는 오른쪽 날개로 포지션을 바꿨다.

4-4-2 전술로 시작한 토트넘의 전술은 4-2-3-1 전술은 물론 4-4-1-1 전술로 다양하게 바뀌었고, 그때마다 손흥민의 위치도 변화했다. 어느 자리에서 뛰어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이 뒷받침돼서다. /연합뉴스

손흥민 “경고 누적...4강 1차전 결장 몰랐다”

“(경고누적인지) 몰랐어요.” 승부에만 집중했 때문이었을까. ‘손세이셔널’ 손흥민(27·토트넘)은 자신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출전 정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시즌 19·20호골을 잇달아 터트리는 ‘멀티 골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3-4로 꺾었지만 8강 1, 2차전 합계 4-4를 기록,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4강 티켓을 품었다. 2골을 혼자 책임진 손흥민은 후반 3분 케빈 더 브라위너의 골파를 막는 과정에서 주심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았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2개의 옐로카드가 있었던 손흥민은 경고 누적 때문에 아약스(네덜란드)와 4강 1차전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준결승부터 기존의 옐로카드는 모두 소멸하지만 이미 2개의 옐로카드가 쌓여있던 손흥민은 아쉽게 경고누적(3개)으로 1경기 출전 정지를 받고 말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고를 받을 때 자신의 출전정지 처분을 알지 못했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손흥민이 경기 끝난 뒤 독일 스포츠스포츠 방송과 인터뷰 도중에 준결승 1차전 결장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며 “손흥민은 상심하며 ‘나는 몰랐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어도 손흥민이 4강 2차전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대진



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18·발렌시아)의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출전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발렌시아 구단과 이강인의 U-20 월드컵 출전에 합의했다”라며 “이강인은 23일 오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정우영(원전), 김정민(리퍼링) 등의 다른 해외파 선수들의 소속 구단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5월 1일 21명의 최종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지난 15일 국내 훈련 소집훈련에 나설 22명의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어 이강인의 귀국날짜가 확정되면서 22일부터 파주NFC에 모여 담금질을 펼친다. /연합뉴스